

2016년 12월 7일, 서귀포시 서호동 허노생씨 댁, 김선희 조사.  
허노생(여, 1932년생, 서귀포시 서호동)

**[조사자]** 귀신 봐난 애기는 엇수과? 도체빋불은마썸?

**[제보자]** 도체빋불은 우린 안 봐난. 어떤 사름들은 제사 먹으레 가당 오당 뭐 무시거 행, 편즉편즉하믄 말제인 뒤터레 가당 보민 탁 사가정. 사람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헛젠 해도. 난 그런 건 봐나진 안 헤연. 들어만 봐낫주. 이 동네는 그런 거 아니 나완.

요즘은 다 혁신돼 부난 헛주만은 애기들 어린 때 죽으민 그디 묻으는 산들 막 하여 잇어낫주게. 게문 밤이 '글로 애기 우는 소리 낱저.' 해도. 우리 그레 멀곡 그런 거 들어보지도 안 허곡.

- 핵심어 : 도체빋불, 편즉편즉, 애기무덤, 우는 소리